

한·일 청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일본 와카모노 정책의 시사점



일시 | 2018. 8. 27(월)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기동민·서형수·표창원
사단법인 선,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후원 | 보건복지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인사말

남인순	국회의원	04
기동민	국회의원	06
서형수	국회의원	08
표창원	국회의원	10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12
이병학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원장	14

■ 사회

이원재 LAB2050 대표

■ 주제발표

1. 일본 와카모노 지원의 과제 : 일자리 지원에서 종합적 지원으로

야마모토 코헤이	리츠메이킨대학 교수	17
----------	------------	----

2. 한국의 대처와 과제에 대하여

강내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29
-----	-------------------	----

■ 토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35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41
김승오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협회장	51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61
김희옥	크리킨디센터 센터장	71
강현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7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마련된 “한·일 청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일본 와카모노 정책의 시사점” 토론회를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관심을 갖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여 주시고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 서형수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그리고 사단법인 선,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발표를 하여주실 야마모토 코헤이 리츠메이킨대학 교수님과 강내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사님, 토론을 하여주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님, 김승오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님,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님, 김희옥 크리킨디센터장님, 강현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을 지원하는 일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거나 거부하는 청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에 대해 일자리 연계뿐만 아니라 자립 의지와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히키코모리’와 같은 청년층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아동·와카모노육성지원추진법”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층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민을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책의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사회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각계 전문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청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잘 반영하여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송파병 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한일 청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남인순 의원님과 사단법인 선, 중앙자활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바쁜 와중에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년 니트족은 ‘일자리가 없으면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족 증가 현상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29세 사이의 청년 니트족은 120만명을 넘습니다. 청년 전체에서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OECD 평균(13.9%)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 니트족들에 대해 '일하기 싫어서 놀고 먹는 젊은이' 또는 '일부러 일하지 않는 청년'이라는 인식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 청년들은 놀고만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풀이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좌절로 사회적 자립을 포기하고 무기력해진 청년들이 니트족들입니다.

청년 니트족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의 대물림, 학력, 지역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격차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 밖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본의 경우 취업 중심의 청년 정책에서 전환해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환경을 기반으로 청년의 심리적 문제도 해결하려는 등 다방면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해 청년 니트족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들이 나오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복지의 관점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형수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국회의원 서형수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청년층의 문제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 외에도 청소년기의 탈학교(early-school-leaver)와 사회적 소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육, 취업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청년 니트(NEET)가 2016년 기준 178만 명(청년 인구의 18.9%)으로, 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높습니다.

이것은 청년층의 문제를 더 이상 취업지원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청년층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층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지난해말 청년 니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 니트로 대변되는 최근의 청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을 확인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취업성공패키지 강화, 중소

기업 취업 청년 지원 등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시점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청년층의 문제를 무조건적인 취업연계가 아닌 심리적 자립과 사회관계망 형성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실질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청년층 지원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일 청년들의 문제들을 놓고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청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설 수 있는 정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는 청년층 지원정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기꺼이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야마모토 코헤이 교수님과 강내영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이원재 소장님과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건승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살피고, 그 지원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살피는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준비에 힘써주신 남인순 의원님, 기동민 의원님, 서형수 의원님과 (사)선, (재)중앙자활센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청년들이 취업난에 시달린다는 뉴스가 끊이질 않고, 그로 인해 취업 의지를 잃은 청년 NEET(이하 ‘니트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니트족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는 급기야 사회병리 현상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니트족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국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우리나라 청년들 개개인의 삶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청년 니트족이 사회 부적응이나 히키코모리 현상 등을 보이기도 하며, 이는 그들이 노동에 대한 무기력증 외에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고용이나 취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 정책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니트족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단순하고도 결과론적인 접근 방식은, 청년 니트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관련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고,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이 재정비되어야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가 해당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이면 대한민국 100주년입니다. 앞으로 더욱 빛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인 우리 청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한한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 표창원



사단법인 선 이사장 강금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선 이사장 강금실입니다.

근래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청년고용정책’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기동민·서형수·표창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와 함께 보건복지부·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후원으로 〈한·일 청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일본 와카모노 정책의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청년실업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치중해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되고 있다는 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의욕 자체를 상실해서 청소년기 이후 사회적 자립으로 이행하지 못한 청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청년들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고 도리어 이들을 더욱 고립시켜 문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청년들이 근로의욕과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과도한 경

쟁에서 뒤처지며 미래를 그리는 것 자체를 포기해 버렸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집단참여가 불가능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버렸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 해결책도 한가지일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 공급과 단순한 직업훈련 중심인 현재의 청년취업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청년들의 근로의욕 상실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고민해왔던 일본 사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짚어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함께 협력하여 우리사회의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외형적 성과를 넘어 청년을 인격체로 인식하고 내면의 치유와 사회적 여건 마련을 상호 연결하여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그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소속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그들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토론회를 기획하신 강내영 박사님을 비롯한 참가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국회의원님들과 모든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한데 모으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사단법인 선 이사장 강금실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원장 이병학

안녕하십니까.

중앙자활센터 원장 이병학입니다.

먼저 오늘 청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남인순·기동민·서형수·표창원 의원님과 사단법인 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 기꺼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층이 기성세대 중심의 사회로부터 타자화 내지 단순히 정책대상화 되어서는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나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와 같이 사회적 자립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이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청년층의 문제를 실업의 문제로 해석하고 취·창업을 통해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의 문제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정에서부터 취업을 전제로 각박한 교육환경에 놓이거

나 최근 가정과 지역사회의 해체, 사회·경제적 양극화, 중고령층의 빈곤,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이 존중되지 못하는 기업문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미래의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청년층의 문제는 그 원인을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이들의 연약함으로 치부한다거나 단순히 고용정책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청년층의 상황을 이들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노동·경제·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 미시가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활센터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자활사업에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청년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업이 청년층 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인프라를 통해 청년층을 우리의 공동체가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지역사회의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과 단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재)중앙자활센터 원장 이병학



주제발표 1

일본 와카모노 지원의 과제 - 일자리 지원에서 종합적 지원으로

야마모토 코헤이
리츠메이킨대학 교수

일본의 와카모노(若者)지원 정책을 묻다

야마모토 코헤이(山本耕平)

리츠메이칸 대학 산업사회학부

(번역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내영)

오늘 발표의 주제인 와카모노(若者)라는 개념은 일본에서는 “아동·와카모노육성지원법”에 의해서 0세부터 30세까지 해당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9세부터 24세까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15세부터 29세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현재 일본의 와카모노 지원현장에서 등장하는 와카모노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일본의 와카모노 지원의 한계 및 본인이 생각하는 종합적인 와카모노 지원이란 무엇인지 발표하고자 한다.

사회학자 미야모토미치코(宮本みち子)는 「프리타·실업자·니트 등의 와카모노가 증가하는 원인을 노동시장의 악화와 고용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악화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져 있는 와카모노에게 보다 큰 데미지를 주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히키코모리(은둔형외톨이) 문제가 젊은층의 고용문제와 맞물려 현저하게 일어나는 것도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히키코모리 문제가 급격하게 심각해졌던 1990년대에 노동·교육부서의 행정당국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들의 담당과제가 아니라고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히키코모리가 주로 발생하는 연령인 20세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 이유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특별한 사례에 대하여 20세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있지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8세미만이 대상이며, 비행과 범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은 20세미만이 대상이다. 그러므로 담당부서를 넘어서 성인으로 이행할 수 있게 연계하는 법의 필요성으로 인해 2010년에 “아동·와카모노육성지원추진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1990년 이후 심각해진 와카모노의 자립곤란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고용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어온 장기 등교 거부와 히키코모리 상태, 니트 상태 등이 원인이 되어 성인이 된 20세 이후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와카모노의 사회적 고립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법률이었다.

와카모노들의 삶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으로는 ①부모로부터의 학대나 양육방기를 드는 관점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정신장애가 있어 충분한 양육이 안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들은 긴 시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트라우마로 인해 의욕적으로 생활을 대하는 자세에 힘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자신들을 보호해줘야 할 존재이지만, 아이들은 그 존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안심하고 자신의 인생과 마주볼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②학령기에서 괴롭힘이나 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가치나 존엄을 집단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이나 삶의 문제에 맞설 힘을 잃어버린다. 그 결과 학교, 직장, 지역으로 편입이 곤란하여 고립이 된다. 또한 ③불행하게도 와카모노 자신에게 발달장애나 정신장애가 있을 때나 긴 시간에 걸쳐 내과질환으로 요양을 한 경우, 그 생리적 특징에서 집단에 참여하거나 타자와 관계하는 힘에 장애가 생겨서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할 의욕이나 힘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17년에 열린 일본학술대회에서는 와카모노 지원정책의 확충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였다. 그 작성 배경에는 와카모노는 「빈곤, 교육기회, 노동시장, 사회보장」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혼가정이나 가족형성의 자유가 저해되어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기책임론, 가족책임론이 강한 일본에서 와카모노 지원정책이 확충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와카모노 지원정책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다.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된 것을 계기로 경제침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와카모노세대의 일자리와 생활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취직 빙하기·초빙하기, 리먼쇼크 등에 의한 「취업확정취소」, 「파견해고」 등 커다란 사회변화에 대해 정책면에서의 전환과 대응이 늦었다. 고도성장기·안정성장기에는 자기책임론·가족책임론이 강했으며, 1990

년 이후에도 와카모노들의 복지를 “우선고용” 즉 「기업복지」로 해결하려는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로 인해 와카모노 지원정책은 종합적인 정책이 되지 않고 일자리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출발한 것이다.

와카모노의 빈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와카모노 자립 및 도전플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일자리라는 영역으로 한정하여 일자리를 축으로 하는 「사회적 포섭」의 회복을 꾀하는 정책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국가형의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와카모노 정책의 성격을 가진 와카모노 취업지원정책은 「사회적 배제」의 최저선에 있는 중졸, 고교중퇴, 고졸프리타층 등을 여전히 배제해 오고 있다.

2003년 6월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기획예산담당의 장관으로 구성된 와카모노 자립·도전 전략회의에서 「와카모노 자립·도전 플랜」을 발표하였다. 이 플랜은 「프리타가 약 200만 명, 청년실업자·무업자가 약 100만 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교육정책·고용정책·산업정책이 연계하여 민관일체가 되어 청년층의 「인재대책의 강화」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대하여 코미가와코이치로(児美川孝一朗)는 이 「와카모노자립·도전플랜」으로 시작된 와카모노 지원정책은 세 가지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교육·고용·주택·사회보장 등 광범위하게 걸친 와카모노 정책이 일본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한 각 분야를 연결하는 정책이 탄생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신규대졸자취업」과 「일본적 고용」은 축소·해체의 프로세스로 돌입하여,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과 비정규직의 급증이라는 고용문제가 발생하는 속에서 본격적인 와카모노 고용정책을 끄집어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와카모노지원정책은 복지국가형의 토대가 없는 상태의 신자유주의적인 와카모노정책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와카모노 지원정책은 당시의 민주당에 의해 보기 좋게 대부분 삭제되었고, 언제 커트될지 불안해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와카모노서포트스테이션>이다. 내각부는 2014년 3월에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곤란을 가진 아동·와카모노 및 가족지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취업지원을 핵으로 하는 와카모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사람과 관계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등교거부군(群), 히키코모리군(群), 니트군(群)에 공통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등교거부에서는 95%, 히키코모리에서는 91%, 니트에서는 80%로 보고되고

있다. 동시에 대상군은 「커뮤니케이션능력의 저하」 역시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므로 와카모노 지원은 일자리지원에 한정되거나 일자리지원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와카모노들이 사람과 관계하는 것에 불안을 가지는 것에 대해 지원기관이나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잠시 주춤할 수 있는 하나의 예로 바라보고, 그러한 불안과 마주하면서 고민하기, 자신과 새롭게 마주하기, 자신과 대화하기, 자신이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3년에 시작된 일련의 와카모노 고용대책은 빈곤도가 높은 와카모노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야모토미치코(2015)는 〈와카모노서포트스테이션〉이 과적한 배가 되어 지금 취업률이라는 평가기준에 시달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미야모토가 지적하는 것처럼 와카모노서포트스테이션의 활동으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가시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와카모노가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와카모노의 생활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나 예방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왔다. 학교와 연계하여 중퇴를 방지하는 활동이나 고교중퇴 직후에 서포트스테이션에 연결할 필요성이 확인되어 2013년에는 학교연계에 특별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이처럼 개개인에게 보다 밀착하여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그 와카모노가 국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면 대상이 되지 못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히키코모리이다.

「지역와카모노서포트스테이션」 사업의 향후 방향에 관한 검토회」(2014)에 제출된 자료에는 「서포트스테이션은 와카모노에 대한 취업적 자립지원기관이면서 취직 등 진로결정자 수를 평가지표로 한다」라는 국가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취직 등 진로결정수를 서포트스테이션의 평가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일자리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는 와카모노들이 서포트스테이션 이용자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현재의 기업에 억지로 적용시키는 정책에는 한계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공간이 너무 좁고 선택지가 없다. 그러한 아이들에게 생명의 안전과 위험을 가로축으로 놓고, 정책적으로는 포섭과 배제를, 실천적으로는 발달장애와 발달저해를 세로축으로 하여, 정책과 실천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와카모노 지원정책이란 「가족·주거」, 「일자리·수입」, 「동료·친구」의 분야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아동시기에서부터 일관된 환경정비와 안전망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안전망이 삶 전체에 일관되게 작동되지 않는다면 위기에 빠지기 쉬운 아동과 가족의 인생을 일관되게 돌보기 어렵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를 축으로 거기에 「사회적 포섭」의 회복을 꾀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되어 「사회적 배제」의 최저변에 있는 층을 정책과 실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와카모노 중에는 스스로 상담하러 올 수 있을 만한 힘을 잃은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 위험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돌보느냐가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就労支援から総合的支援へ －日本の若者支援の課題－

作成：立命館大学 教授 山本耕平

立命館大学の山本耕平です。本日、この機会をお与え頂き感謝申し上げます。

私が、今日とりあげる子ども・若者とは、日本では、子ども・若者育成支援法において0歳から30歳くらいをさすとされています。一方、韓国では、青少年福祉支援法では9歳から24歳まで、青年雇用特別促進法では、15歳から29歳までをこの対象にしています。

本日、私たちの若者支援現場に登場する若者たちが抱える生きづらさの社会的背景について報告するとともに、日本の若者支援の限界について指摘し、私の考える総合的な若者支援につき報告します。

社会学者の宮本みち子は「フリーター・失業者・ニートの若者が増えたのは、明らかに労働市場の悪化と、雇用構造の転換に主な原因がありましたが、労働市場の悪化は、心身のハンディなど、さまざまな不利な条件をもっている若者に、より大きなダメージを与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引きこもりの問題が若年雇用問題の進行と歩調を合わせて顕在化したのも、その表れといえるでしょう」と述べています。

昨年（2017年）、日本学術会議は、若者支援政策の拡充に関する提言をまとめました。その作成の背景において、若者は、「貧困、教育機会、労働市場、社会保障」から排除されている事実があり、離家や家族形成の自由が阻害され、彼らが暮らす地域は分断されている事実があることを指摘し、自己責任論、家族責任論が強い日本において若者支援政策の拡充は阻害されてきたと述べています。

ここに示したのは、私たちが支援現場で出会う若者たちの姿とその背景です。私たちは、「学業や友達関係で躰き不登校」となった若者や、「高校時代になんらかの要因で中退となった若者」、「高校を卒業し、専門学校や大学に進学したものの、社会との関わりで自分を捉えることができず疲れはてた若者」さらには、「初職での躰きから人や社会と関わるのが極度に生きづらくなってしまった若者」や、なんらかの障害をもった若者やひきこもっている若者等々と様々な者と出会います。もちろん、この他にも、さまざまな生きづらさをもった若者たちが、私たちの前に登場するのです。

若者たちの生きづらさの要因、なかでも社会的な背景には、親からの虐待や、養育放棄をみることがあります。そのなかには、親に精神障がいがあり、十分な養育ができなかった者もいます。その者たちは、どうも長期にわたり繰り返されるトラウマの為、意欲的に生活と対峙する力を奪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捉え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さらに、親は、子どもや若者にとって、護られる存在ですが、その存在を失うことへの不安が彼らを襲い、安心して自己の人生と向き合う力を奪われるのではないと考えます。

次に、学童期からのいじめやなかまからの排除の被害にあってきた者や、職場集団で排除されてきた者は、自己の存在価値や尊厳を集団のなかで見出すことができず、生活課題に向き合う力を失います。その結果、「学校」「職場」「地域」への参加が困難になり孤立するのです。

さらに、不幸にして、若者自身に発達障や精神障害がある時や、長期にわたる内科疾患で療養している時には、その生理的特徴から、集団に参加し、他者と関わる力が障害され、仕事をこなし、仕事に立ち向かう意欲や力を障害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こうした若者の生きづらさを強める背景には新自由主義の深化があります。

私は、若者の諸課題は、若者の発達に影響を及ぼす経済や文化・価値等の社会的背景や若者の発達を規定する社会システム（学校・家族・地域）の変容との関わりで生じると考えています。

高度経済成長の当時働き盛りだった人は、今、60～70歳代です。その子どもたちは、40～50歳代になります。高度経済成長は、学歴主義・会社主義・競争主義によって支えられてきました。少しでもいい学校を卒業する為に、激しい受験競争が強いられ、就職した会社では同僚と出世を争い業績をあげる競争を行い、マイホームやマイカーがある生活を生み出してきました。しかし、それは、見かけの豊かさでした。

1970年代後半からは、校内暴力、いじめ、登校拒否が深刻になってきたのですが、国連の子どもの権利委員会は1998年の総括意見において、競争主義がもたらす弊害として、いじめや学校内暴力が存在することを指摘しています。

1980年当時のバブルが1990年代に入ると崩壊し、若者たちは「失われた10年」に突入します。中曽根以降の新自由主義の進展は、教育や福祉に市場原理（競争原理）を大胆に持ち込み、所得格差を広げ、非正規雇用を拡大し、地方経済を疲弊させ、貧困を社会問題の表舞台に登場させる帰結を招いたのです。こうしたなかで、2003年に「若者自立・挑戦プラン」が出されます。ここに示しましたのは、社会的な排除のなかで、もっとも深刻な帰結といえる自殺による死亡率の推移です。

ここに示しましたのは、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のワーキング・プアに関する調査です。ここでは、こうした事実が若者たちを襲っているという事実を共通の認識と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日本の若者支援政策は、さほど歴史のあ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1990年代初頭のバブル経済崩壊を契機として経済の低迷が続く中で、若者世代の就労や生活には様々な問題が生じてきました。

1990年代以降、就職氷河期・超氷河期、リーマンショックにより「内定切り」「派遣切り」等の大きな社会変化に対して政策面での転換や対応が遅れました。高度成長期・安定成長期において自己責任論・家族責任論が強固であったのですが、1990年代以降も、若者たちの福祉を、まず雇用されることにより「企業福祉」のなかで、その機会を得させようと考えてきた政策側の意図があったのです。この為、若者支援政策は、総合的な政策とならず、就労支援政策を主として出発したのです。若者の貧困化進行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国の政策は、「やる気のある若年層」対象とする「若者自立・挑戦プラン」にみられるように、基本的には就労という領域に限定し、就労場面を軸に「社会的包摂」の回復をはかるための政策でした。

諸外国におけるような福祉国家型の“土台”を欠いた、新自由主義的な若者政策としての性格をもつ若者の就労支援政策は、「社会的排除」の最底辺にいる中卒、高校中退、高卒のフリーター層などを依然として排除し続けてきたのです。

2003年6月、文部科学大臣・厚生労働大臣・経済産業大臣・経済財政政策担当大臣を構成メンバーとする若者自立・挑戦戦略会議が「若者自立・挑戦プラン」が公表され

ました。このプランは、「フリーターが約 200 万人、若年失業者・無業者が約 100 万人と増加している」状況が社会問題化してきたことを受けたものであり、教育政策・雇用政策・産業政策が連携し、官民一体となった若年の「人材対策の強化」を総合的に打ち出したものです。

この若者支援政策は、内閣府が、2014年3月に支援者を対象とした調査の結果公表しました困難を有する子ども・若者及び家族への支援に関する調査研究では、就労支援を核とする若者支援では事足りない事実が報告されています。

これをみますと、「人と関わることへの不安」が不登校群、ひきこもり群、ニート群に共通して高率であり、不登校では95%、ひきこもりでは91%、ニートでは80%になります。さらに、この人達には、共通し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の低さ」高率となっています。

こうした若者たちへの支援は、就労支援に限定したあるいは就労支援に偏ったものであってはなりません。

人と関わることへの不安をもつ若者たちへの支援は、人としての発達過程での「つまずき」の一つとして、その不安が生じていると捉え、「つまずきに出会うことを通して悩み、自分とあらためて向き合い、自分と問答し、自分の生きるべき道を見出だしていく」過程そのものに向き合う支援となる必要があるのです。

そのなかで、若者の生活危機を早期に発見し対応することや、予防する必要性が認識されてきました。こうして、学校と連携して中退を防止する取り組みや、高校中退直後にサポステにつなぐ必要性が認識され、2013年度には学校連携に特別予算が付くまでになったのです。

この図は、今日の社会の構造的な矛盾が起因となり生きる場が脆弱化していく姿をイメージしたものです。これは、アギュララの危機理論を根底に考えたものです。そもそも、今日の社会が「子ども・若者を護り育てる機能が弱化するあるいは崩壊」しており、そこでは、貧困化が深刻となり生活の不均衡状態が高まり、生活危機に対峙する力が脆弱します。そこを社会資源の不備が襲えば、家族は地域から孤立し、子ども・若者は家族から孤立する状況が生じます。そうしたなかで、学校・職場・地域に参加することが困難となり孤立化が進むのです。ここに、社会資源の不備、なかでも仲間・社会に参加し溶け込む機会・社会資源の不備があると、子どもたちは、社会的孤立し、非行や犯

罪集団に参加し、時には家出し彷徨うことになります。

私は、その子どもたちを、生命の安全と危険の軸で、それは、政策的には包摂と排除、実践的には発達保障と発達阻害の軸で、政策や実践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さらに、総合的な若者支援政策を考える為には、若者支援政策を「家族・住まい」「仕事・収入」「仲間・友達」の分野で考えることが必要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この軸で考える時、今、第一に、子ども期からの一貫した環境整備と、セイフティ・ネットがあるのか否かを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のセイフティ・ネットが人生を一貫したものでないならば、危機に陥りやすい子どもや家族に人生を一貫してケアできないのです。第二に、就労を軸に「社会的包摂」の回復をはかるための政策が追及され、支援の機会が量的に不足しているだけでは、「社会的排除」の最底辺にいる層を政策や実践の対象としきれないのです。第三に、若者たちのなかには、自分の力で相談に訪れる力を失っている者もいます。つまり、危険なところで生活している者です。この者をどう把握しケアするのが議論されねばなりません。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주제발표 2

한국의 대처와 과제에 대하여

강내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한국의 대처와 과제에 대하여

강내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앞서 야마모토 교수가 발표한 일본의 젊은층(와카모노)에 대한 사회적 과제들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과제들과 발생 형태나 내용이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 정부의 대처 방식 역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지점이다.

2016년 한국사회에서 청년 NEET(15세~29세)는 18.9%이며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니트 기준은 147만명, 15.7%로 3년간 계속하여 증가해 온 추세여서 시기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청년 니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둘러싸고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다양한 대처방식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이제 그러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제로 두고 우리나라의 대처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정책 대상 또는 현상에 대한 용어의 논의 필요

일본에서는 “와카모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와카모노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의 연령대로 대상을 구분하던 방식에서 연령대를 관통하는 성장기의 그들의 삶의 문제로 들여다보고 그 문제가 사회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특정부처의 대처가 아닌 부처를 넘어서는 문제로 인식하여 후생노동성, 내각부등에서 공식적인 정의와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이것이 현대 일본사회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나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청년 니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각각 다르다. 작년말 국회에서 열린 ‘청년 니트 200만 시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에서는 니트에 대한 실태 분석을 발표하면서 부처를 초월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부분에서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왜 니트화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논의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한계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한일청년 포럼이나 이충한의 ‘비노동사회를 사는 청년, 니트(2018)’에서 니트 문제를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해 온 희망플랜 사업도 일자리 문제로만 바라본다는 시각의 한계는 있었으나, 지역의 안전망이라는 관점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논의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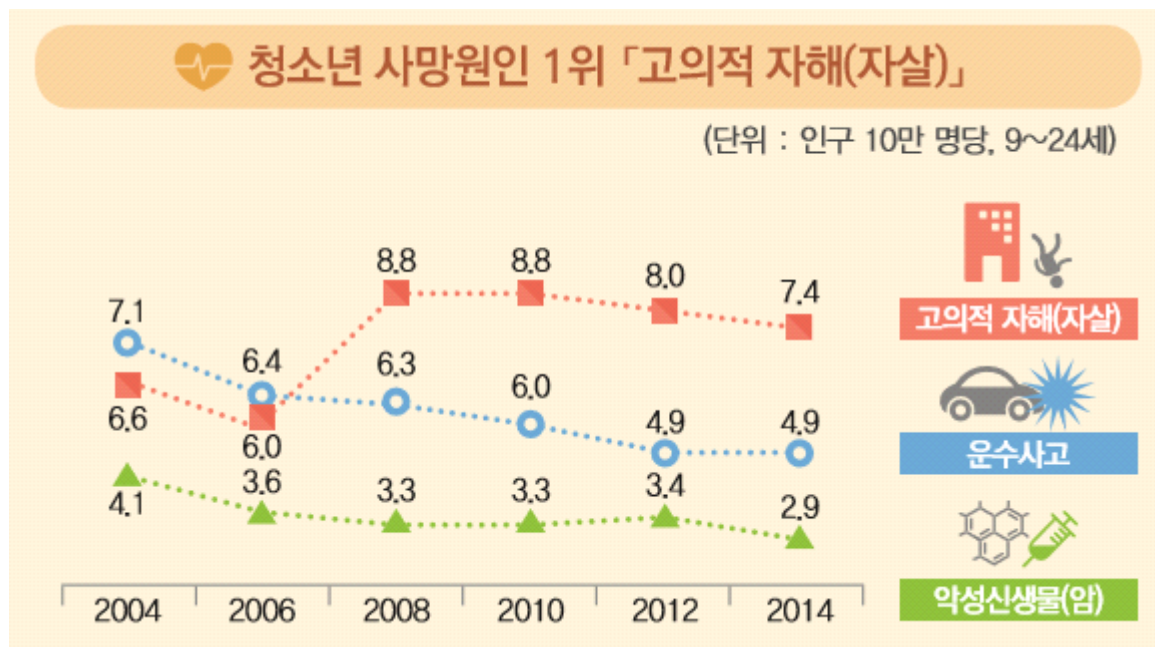
다만, 이러한 논의들이 청년시기로 획을 그어 바라볼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인식이다. 일본의 논의에서 보이듯이 현재 한국의 청년문제의 논의의 시작이 청년 니트라면 그러한 청년 니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선결 과제로써 용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기존의 아동청소년기 - 청년기 - 노년기 등의 접근방식은 다른, 한 사람의 전체 생애주기에 맞추어 다양한 경로의 삶의 문제로 인해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거나 무기력해지면서 니트나 히키코모리 등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

2. 현황 분석에 따른 해결방안이 아닌 근본적인 접근법이 필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니트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니트의 정의를 내리는 문제가 논쟁 중이다. 그러나 논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니트가 발생하는가? 라는 원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니트라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결과론적인 분석이 대부분이다. 니트는 초기의 10대 청소년에서 20대 청년층의 일부로 확장되어가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떠한 연령층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왜 니트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한국노동연구원, 2017).

야마모토 교수의 자료에서 보더라도 니트의 원인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의 가정폭력이나 학교에서의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등교거부, 가출, 히키코모리 등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니트화 된 경우도 많다”라는 내용처럼 단순히 청년 일부의 연령 집단에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청소년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아래의 그림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청소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의 가출 이유 1위로 부모와의 불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가정에서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리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청년 니트의 시작이다.



자료 : 통계청(2018)

성장해 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가출, 히키코모리, 학교 밖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년원이나 형무소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삶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거나 경험한 사람을 배제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로 이행하거나 자립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와카모노의 상황처럼 우리나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발견하거나 포섭하여 사회 안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3. 사회 밖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 종합적인 협력 체계 구성

○ 관련 법과 제도 정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는 다양한 경로의 삶의 문제로 인해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거나 무기력해지면서 니트나 히키코모리 등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해 연령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관점도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아닌 한 사람의 생애주기 전체로 접근해 들어가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인권과 교육과 노동, 문화 예술 등이 결합된 형태의 지역안전망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기존의 제도들에 그러한 개념을 덧씌우는 지역사회 안전망 기본법 또는 지원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 논의해보면 좋겠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현재 그러한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불안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중에도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빠지더라도 안전하게 받아주고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지지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기존 협력기관들을 통한 지원 체계 실행 구조 마련

일본의 접근방식처럼 “와카모노 서포트 스테이션”과 같은 실행 기관을 한국에도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그들의 생활의 문제를 지근거리에서 살펴주고 도와주는 지역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이미 생활권(지역사회)에 존재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존의 관계기관과 단체들이 지속가능한 지원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동복지센터, 복지관, 청년센터, 대안학교,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마을모임 등 이미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상호 네트워킹하여 함께 돌보고 그들이 다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해 본다.



토론 1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와카모노(若者) 지원정책” 토론문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제문을 통해 일본의 와카모노(若者)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청년과 같이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 청년들의 현실과 일본 정부의 지원정책은 우리나라 청년지원정책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야마모토 코헤이 교수님과 강내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현세대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소 방안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럽의 국가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노동시장 문제가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또한 청년층을 도울 수 있는 입법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 하지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일본의 와카모노(若者)에 해당되는 청년층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더 복합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사례와 관련하여 발제자에게 드리는 질문

- 야마모토 코헤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문에서 “와카모노 자립·도전 플랜”과 관련하여 동 정책이 왜 일본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고용·주택·사회보장 등이 함께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계획만 발표하

고 실행이 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일본에서 와카모노(若者)로 설명되는 청년층은 전체 청년중에 일부로 사회배제를 경험하는 청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청년문제는 와카모노(若者)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강내영교수님 발제문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청년 니트의 문제를 우리가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청년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기-청년기-노년기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하지만 현세대 청년층의 문제는 보기에 니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지원방안도 다층화, 다각화 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정책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이 필요한 부문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청년에 대한 입법조치는 빈약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을 위한 입법은 부족한 상황이며, 있어도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이 부족합니다.
- 올해 5월 상임위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올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란 점에서 향후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표 1〉 생애주기별 법령 및 자치법규 수(2015년기준)

구분	법령	자치법규
아동	23	796
청소년	19	1,565
청년	3	49
노인	13	1,279

자료 : 김문길 외(2015), 청년근로빈곤층 사례연구, 청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p18, 재인용)

○ 청년문제의 심각성과 어디부터가 문제이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인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의 구축이 필요

- 노인, 빈곤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는 주기적으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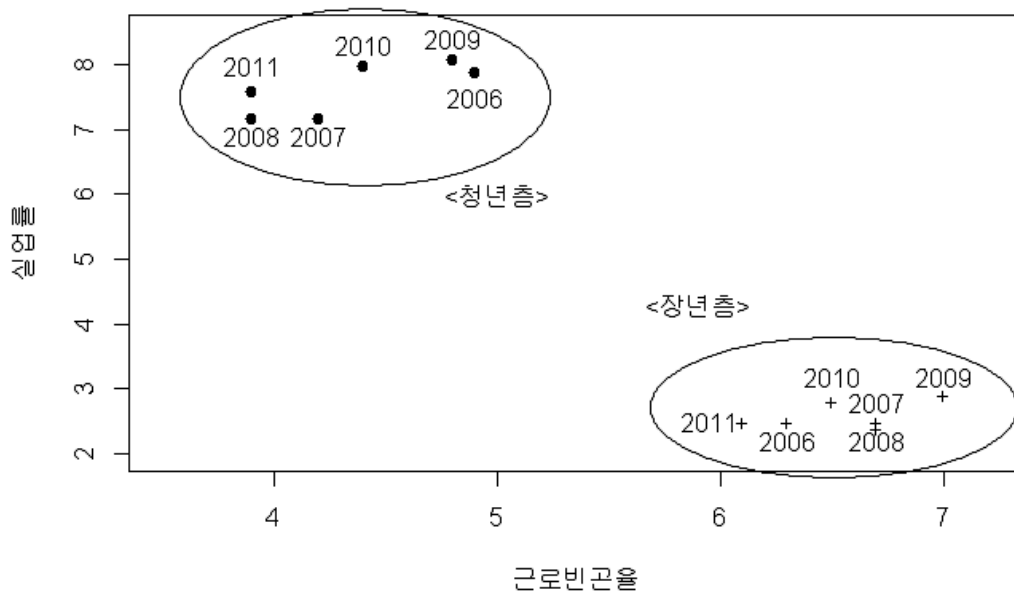
사가 되고 관련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통계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 많은 연구자들은 기존 통계를 활용하거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통합적 정부정책을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통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 청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되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지원대상군을 분류해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일본의 와카모노(若者)로 분류되는 청년층이 니트, 학교밖 청소년 등을 포괄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이들 계층과 더불어 소득, 빈곤,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지닌 청년층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년관련 연구를 통해 보면 현재 우리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다차원 빈곤을 통한 연구에서 청년은 경제력, 고용, 안정성 영역에서 중장년과 노인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김문길 외, 2017).
- 아래 그림에서도 청년층은 소득보다는 고용 즉 실업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청년층 및 장년층의 실업률 및 근로빈곤율 비교



자료: 김태완 외(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p173)

- 이외에도 청년은 주거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가구주 중 청년독거가구는 열악한 물리적 주거환경(오피스텔 또는 지하·반지하·옥탑방 거

주)과 불안정한 주거점유형태(월세), 임대료 과부담 등 다양한 주거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김문길 외, 2017).

- 현세대 청년층이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사례에서 제시하신 “교육·고용·주택·사회보장” 등의 종합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장기 청년정책 방향의 하나로써 기회 균등, 계층사다리를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나타나고 있는 채용비리 현상을 통해 보듯이 기회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현 세대 청년은 과거 부모세대에 비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회내 정의와 기회균등이 불안정할 경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세대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기회 균등을 위해서는 시장내 정책과 시장외 정책(=사회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채용비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임금 및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장 및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임금격차가 발생시 낮은 소득을 가지게 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지출부담(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지원,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교육지원,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격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시장외 정책(=사회정책) 측면에서는 강내영 교수님이 발제하신 공동체 형성과 복지정책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중 취약계층은 공동체 속에서 보듬어 안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공동체 형성, 사회적 협동조합, 민간 복지네트워크 등)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복지정책을 통해 동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청년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론 2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서울시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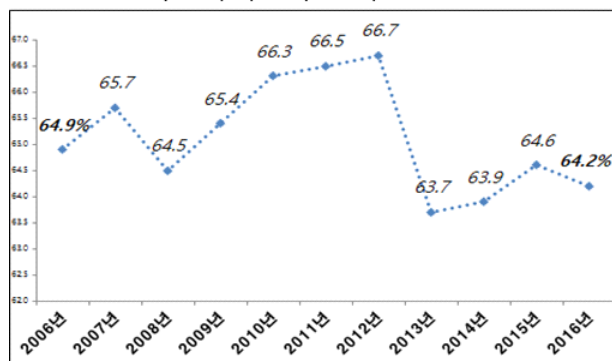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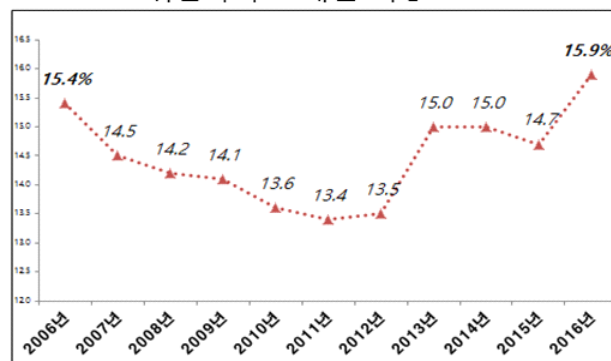
1.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심각해

- 우리나라 만15-34세 청년 니트 인구는 209만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15.8%에 이른다(2016년 기준). 문제는 니트 상태로 진입하는 청년의 수가 매년 더 늘어나고 있고,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 니트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만리장 스펙 쌓기, 취업시험 등 취업준비 기간의 장기화라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청년들의 노동시장은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초단시간 노동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불평등의 대물림이라는 특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고, 장기 미취업자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까지 6개월 미만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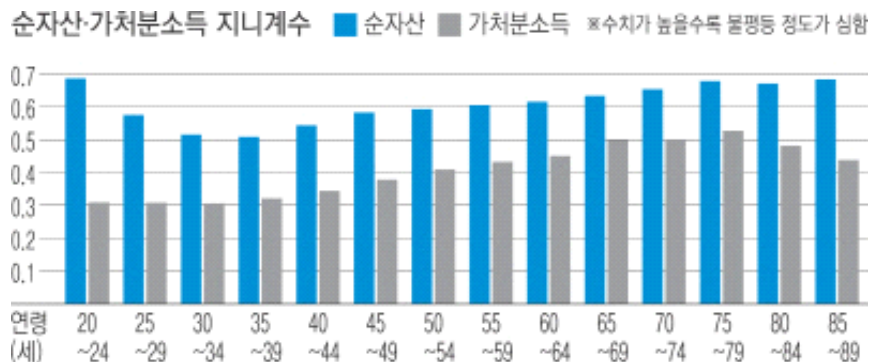


취업까지 24개월 이상 소요



주: 청년 첫 취업 소요기간은 임금, 비임금 근로자 포함이며, 취업 소요개월 기간은 임금근로자 내부 비율
 자료: 통계청 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재분석(김종진 외, 서울시 자료 재인용)

- 청년들이 구직기간 동안 월 평균 83.8만원을 지출, 이 중 부모(가족)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이 월 평균 47.4만원으로 추계된다. 기나긴 구직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주당 평균 22시간, 월 임금 65만원)를 구직활동과 병행하고 있으나 소득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가족과 동거 여부에 따라 생활비 지출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 부모(가족)과 동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청년들의 평균 부채금액은 1,201만원(부채 발생 원인의 87%가 학자금)으로 20대가 되는 순간부터 빚쟁이가 되는 현실이다.(청년유니온, 청년구직자 실태조사자료 인용, 2017)
-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격차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취업을 하더라도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중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사이에 1.98배에 이른다. 청년 연령대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19~24세 구간이 가장 취약할 뿐 아니라 복지패널 평균 수준의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세대 내 자산불평등 또한 20~24세 구간이 전 세대 중 가장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의 지니계수는 0.691로 가장 높았고, 85~89세(0.684), 75~79세(0.679) 구간이 그 뒤를 이었다. 청년층의 자산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부와 함께 빈곤도 대물림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 이철승 외, 세대 간 자산불평등의 형성과 이전: 1990~2016, 한국사회정책학회(2018)

2. 청년기 안전망, 다양한 시도

- 중앙정부는 청년 고용을 중심으로 워크넷, 정부지원 인턴제, EITC, 잡넷, 고용정보센터 확충, 산학연계 강화, 해외진출 지원, 내일채움공제 등의 청년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 서울시를 선도로 지방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넘어 청년수당, 청년통장 등 니트 상태 청년지원과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2030 청년

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보장을 포함하여 청년정책을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특히, 각 지방정부의 청년수당은 졸업 후 미취업 상태(니트상태 포함)의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 위	지 역	총 인구* (단위: 만명)	청년 인구** (비율%)	사업명	시작 연도	대 상	지원금 (기간)	지원인원 (예산)	전달체계	지원·관리 프로그램
광 역	서울특별시	984	242 (24.6)	청년활동지 원사업 (청년수당)	2016	만 19~29세 이내 니트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월 50만원 (6개월)	7천명 (210억)	서울시청년활동 지원센터	심리상담, 관계형성, 자기탐색, 매니징
	부산광역시	346	73 (21.1)	청년디딤돌카 드	2017	만 18~34세 (중위소득 80% 이하)	월 50만원 (연 240만원)	2천명 (33억)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247	54 (21.9)	청년사회진 입조력사업 (시범사업)	2018	사업 참여자에게 소정의 활동비 제공 (상반기 중 세부계획 발표 예정)			미정	심리상담, 진로탐색, 도전지원
	인천광역시	295	67 (22.7)	청년사회진 출지원사업	2017	청년취업성공패키 지 3단계 참여자	월 20만원 (3개월)	4천명 (31억)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146	33 (22.6)	청년드림수 당	2018 (수당)	만 19~34세 미취업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월 40만원 (6개월)	11백명 (30억)	민간위탁 (공모 중)	집행기관 사업계획에 반영 예정
	대전광역시	150	35 (23.3)	청년취업 희망카드	2017	만 18~34세 미취업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월 30만원 (6개월)	5천명 (90억)	대전경제통상 진흥원	-
	경기도	1,293	290 (22.4)	청년구직지원 금	2017	만 18~34세 미취업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월 50만원 (6개월)	23백명 (80억)	경기도일자리 재단	-
	강원도	155	30 (19.4)	구직활동수 당	2017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등	월 30만원 (3개월)	19천명 (170억)	도내 시군	-
	제주 특별자치도	66	13 (19.7)	청년 자기개발 지원금	2018	만 19~34세 미취업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월 40만원 (4개월)	3백명 (5억)	제주 특별자치도	-
기 초	전주시	65	15 (23.1)	청년심포 프로젝트	2017	만 19~34세 미취업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월 50만원 (3개월)	1백명 (1억 5천)	전주시	심리검사, 집단상담, 청춘캠프 (전용공간 활용 예정)
	창원시	106	23 (21.7)	청년구직수 당	2018	만 19~34세 미취업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월 30만원 (4개월)	2천명 (24억)	창원시	-

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 사회진입 지원정책 모델 제안(2018)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 ('18년 3월 기준). ** 만 18~34세 인구 기준.

- 특히,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2020 서울형 청년보장>에 입각한 종합정책 중 니트 상태의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패키지 모델이다. 2016년 3,000명으로 시작, 2017

년 5,000명, 2018년에는 7,000명의 니트 상태의 서울청년이 사업에 참여한다. 청년수당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심리정서부터 관계망, 사회참여 역량강화, 직무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참여자들은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 지원)의 수당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실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정책효용감 비교에서 최종 98.8%까지 향상되었고, 사회적 관심도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마음건강(또래 집단상담, 전문 심리상담)·진로모색(자기이해, 자기정리, 현직자 멘토링 등)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선호가 높았고 만족도 또한 높았다. 특히, 니트 상태의 청년들은 재직자나 재학생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좁고, 아르바이트나 학원생활 등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들이 각광을 받았다. <어슬렁반상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작은 모임들이 참여자들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었고, 비빌 언덕이 되었다.

- (청년수당, 시간지원) 매일 3시간, 매달 꿈을 위한 77시간을 벌었다

: 참여자 분석 연구 1차 조사 결과,

- ✓ 일반기업 취준 48.9%, 공시 준비 23.4%, 창업 4.3%, 창작활동 15%
- ✓ 취·창업 중단 이유 계약종료 29.2%, 노동환경 23.2%, 다른 일 24.3%
- ✓ 취·창업을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13.0%
- ✓ 개인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었다 99.9%

☞ 구직준비 니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비구직니트 제도권 내 포괄 가능성을 보여줌

- (정서심리 취약) 니트 상태 장기화에 따른 정서심리 건강성 악화

: 청년특화 심리정서 자가진단 결과,

- ✓ 심리정서 취약군 30.6%, 진로·정서 2개 분야 모두 취약군 15.4%
-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취약(단, 장기니트상태는 소득 높아도 취약)

☞ 진단 결과에 따라 1:1상담, 집단상담, 진로모색 프로그램 진행

- (신체 건강 악화) 경추·척추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위장질환 증가율 최대

: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실제 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음

: 건강악화→ 낮은 활력→ 낮은 자존감→ 활동 부재→ 니트 장기화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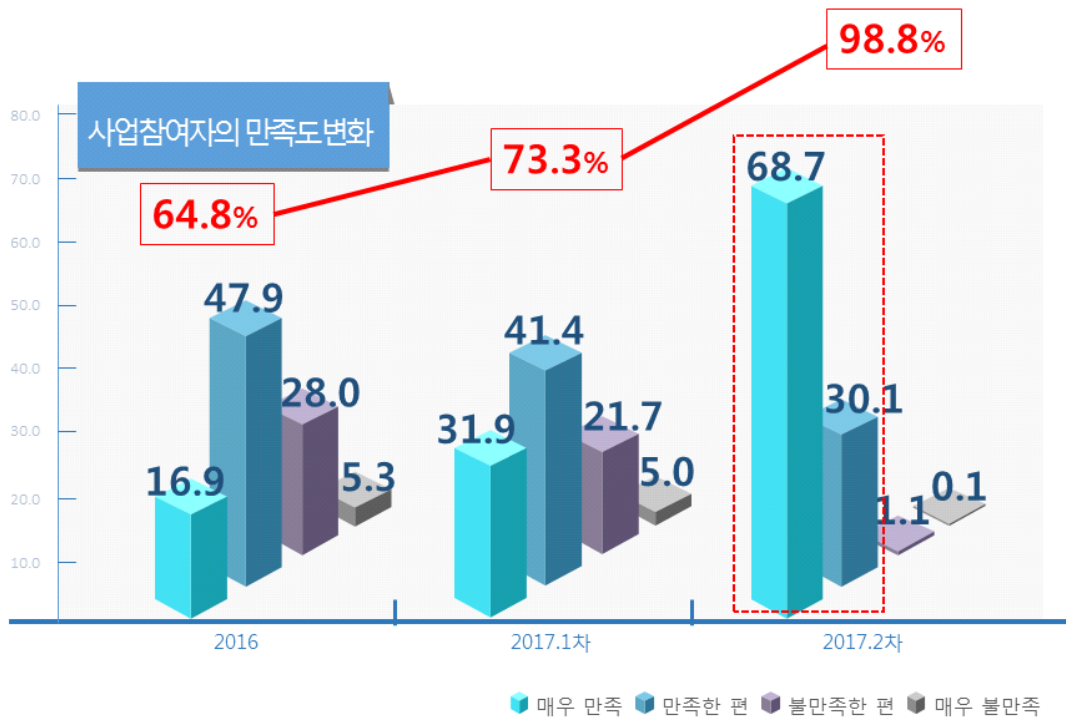
☞ 향후 건강지원 분야 보강 필요

- (고립감 해소) 어슬렁반상회 등 소규모 커뮤니티 지원사업 선호도 높아

: 생활권이나 관심사 중심의 소규모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높은 호감

: 일상의 회복(대화, 관계맺기, 사회적 활동 등)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 필요

구 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
1개 이상 프로그램 참여집단				
1차(a)	5.79	6.73	6.86	6.53
3차(b)	6.83	7.24	7.32	6.95
b-a	1.03	0.50	0.46	0.42
(b-a)a*100	17.82	7.44	6.77	6.36
프로그램 비 참여 집단				
1차(a)	5.86	7.03	7.29	6.76
3차(b)	6.56	7.32	7.40	7.01
b-a	0.70	0.29	0.12	0.25
(b-a)a*100	11.98	4.17	1.60	3.64



- 니트 상태의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매개로 서울시라는 지방정부에 연결되고, 또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니트 청년을 지원하는 해외사례에서도 이러한 방법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 미씨옹로칼 사례는 알로까시옹이라는 수당을 매개로 니트 청년들을 발굴, 전국의 미씨옹로칼을 통해 청년들에게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센터나 전국의 희망플랜이 시도한 종합적인 지원도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항목	일본 지역청년 서포스테	프랑스 미씨옹 로칼
주요 내용	-(대상) 만15~39세 미취업 청년 -(목표) 니트상태 청년이 고용저해요소 직접 해결 -(사업) 커리어 컨설팅 등 전문상담, 스텝업, 소통기술 그룹작업, 기업 현장실습 등 -(연혁) 2006년 시작, 후생노동성 운영 -(실행) 전국 173개소(17) 청년지원 NPO, 법인	-(대상) 16~25세 니트 상태 청년 -(목표) 니트상태를 벗어나 노동시장 진입 -(사업) 동반프로그램(12+6개월) ①직업훈련: 집단프로그램, 시민교육 ②일상생활: 건강,주거,국내외연수,봉사활동 등 ⇒참여자에게 최대 월 470유로 수당 지급 -(연혁) 1982년 시작, 2017년 전면시행, 노동부 -(실행) 전국 453개소(17), 약 13천여명 직원
시사점	-(지역포괄 안전망) 취업지원(헬로워크,잡카페), 교육지원, 복지지원(정신보건복지센터 등), 행정기관, 지역사회 등 지역포괄 안전망 구축, 지원 -(일대일 관계형성) 담당자 1명vs 청년40~70명	-(사회진입 초점)기존 고용서비스+정서심리상담+진로탐색+일경험 등 <u>사회진입 전 과정을 지원</u> -(동반프로그램)수당은 수단, 동반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

- 기존 고용서비스에 한정된 청년 지원정책이 교육, 복지, 사회참여활동, 마음건강 돌보기 등 보다 너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취약상태를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밖청년’을 사회로 포괄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3. 청년층의 격차해소, 보다 전면적인 청년정책 필요

- 사회밖청년을 사회로 포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우선해야 할 것은 청년층이 겪고 있는 다중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시도한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시간을 지원하겠다는 개념이었다면 다중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전면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청소년, 청년일자리, 대학을 비롯한 학교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 지원정책의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지원은 보다 가까이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전달이 필요하다.

- 정책의 방향은 보다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정부는 현재의 청년문제를 단순한 미스매치로만 치부, 임시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듯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청년니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미스매치 문제가 아니다. 사회진입 자체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 즉 세대 내 자산과 소득 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격차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 맞추기를 위해 자산격차 해소 정책과 더불어 관계망과 다양한 사회적 자본들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폼’을 정책적으로 내야 할 때다.



토론 3

김승오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 /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장

청년층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

- 보건복지부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및 청년자립도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

김승오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장

〈 토론의 요지 〉

- 두 발제자의 의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특별히 반론할만한 이견은 없음.
그간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의의 시각에서 특별히 강조 또는 시사점을 추가함
- 그 외 발제와 관계없이 한국 청년지원정책 중 개선·보완되어야 할 점을 말하고,
- 청년정책 사례로서 보건복지부의 청년자립지원사업의 사업모형과 경험을 소개

1. 토론에 앞서 : 청년지원정책 대상자들의 특징을 유형화¹⁾

- A형(설수있다形) : 시장이 요구하는 기본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환경과 취업장벽 등의 사유로 취·창업을 못하고 있는 그룹
 -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학력자, 취업욕구가 강함, 진출 희망분야가 뚜렷한 특징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청년실업자’로 연상되기도 함
 - 취업재수생, 단기 프리타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대부분 정부지원정책이 쏠림
- B형(이제의지形) :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기본 역량은 부족하나 취업욕구가 강한 그룹
 - 학력이 낮거나 탈학교 경험자,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자,

1) 토론자의 주장을 용이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구분했으며, 각 유형의 예시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

- 의욕은 있으나 아직 진로(희망분야)를 결정하지 못한 자, 장기화된 프리타 상태 자 등
- 장기 프리타, 또는 여러 직업훈련 프로그램 회전 수강자 등

○ C형(숨은위험形) : 기본역량도, 의지도,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룹

- 성장기에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저학력 또는 탈학교(또는 탈선), 진로지도 미흡, 인터넷 중독(과몰입) 등의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현재 의지박약 상태인 자
- 지원기관(프로그램)을 찾지 않으며, 일상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존재 자체가 둔감
- 은둔형 외톨이, 니트, 사회관계 부적응자 등

- ※ 1) '청년'의 인구학적 범위를 15~34세로 설정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미취업청년 고용정책 기준)
 2) 발달장애(정신지체)의 경우, 일반노동시장에 특별한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기에 유형에서 제외
 3) 경증정신지체 또는 경계선장애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로 분류되기는 하나 위 유형에서는 제외

2. 「일본의 와카모노(若者) 지원정책(아마모토코헤이)」에 대하여

○ 와카모노의 문제는 청년 이전 시기부터의 상태가 원인이 되어 더욱 심화되었다

-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경우 단순히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배제에 노출
- 뿐만 아니라 이미 청년이 된 B형의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C형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대책은 더욱 어려워짐
- 해결방안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이어줄 수 있는 연계형 통합프로그램*이 필요

* 단일 기관이 통합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전문분야를 가진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와카모노 지원정책 배경에는 자기책임론·가족책임론이 작용했으며, 그 결과 일자리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 한국의 지원정책도 이와 유사 함. 심지어 청년 지원정책 관련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하나에 불과할 만큼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이런 정책기조는 B형과 C형에게 유효하지 못하며,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

○ 와카모노 서포트스테이션 평가기준을 '진로결정자 수'로 하는 것은 문제다

- 위에서 말한 정책배경, 사회적 인식과 합의수준에서 기인한 것으로써 제대로 된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땀질식 단기처방에 그칠 우려
- 한국의 자활지원정책 정책기조와 목표도 이와 유사한 쟁점상황에 놓여 있음

3. 「한국의 대처와 과제(강내영)」에 대하여

- 2016년 한국사회의 청년 니트(15~29세)는 약 147만명
 - 한국의 생계급여수급자 수(약 114만명, '16년말 기준)보다 많은 규모이며, 이대로 가면 빈곤의 심화와 대물림, 사회적 배제와 위험 등 다양한 문제로 확산·발전될 것
 - 토론자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에는 과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녀가 신규로 의뢰된 경우가 다수 있음
- 한국의 청년문제의 논의의 시작이 청년 니트라면 그러한 청년 니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청소년기-청년기-노년기 등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전체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경로로 볼 필요가 있다.
 - 결론적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한국 청년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니트(C형)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지 않음. 애써 점수를 주더라도 B형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 니트는 어떠한 연령층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왜 니트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자립의지 관점에서 볼 때 40대 이상의 자활사업 참여자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
 - 심지어 현재 (지역자활센터)사업은 상위단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보다, 대부분 자원을 C형의 대상자에게 하위단계 프로그램으로 투입하고 있는 중이다.
- 사회 밖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과 협력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아닌 생애주기 전체로 접근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전환
 - 와카모노 서포트스테이션과 같은 단일 기관을 별도 설치하기보다 기존의 다양한 자원들이 상호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 ☞ 위 야마모토코헤이에 대한 의견에서 밝힌 것처럼 단일 기관이 통합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서포트스테이션形)이 아니라, 각기 전문분야를 가진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함

4. 기타 한국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 왜 준비된 청년만을 이야기 하는가?

- 학창시절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을 예뻐하더니, 청년지원정책도 의지가 있고 준비된 청년만을 우선 지원하는가?
- 고용정책이 청년정책의 최우선인가? 통합적인 접근*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의지 (또는 배짱)에 자신 없는가?
- B형(이제의지)과 C형(숨은위험)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마음건강지원, 일상관계 지원, 활동경험 지원 등 3개 분야 사업을 통해 욕구반영 우선, 동행(지원·관리) 확대 실시 등 고용지원정책만을 우선하고 있지 않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중앙·지방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들이 대체적으로 금전적 지원과 취·창업 지원에 치중해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였음.

○ 은둔형 외톨이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신청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기존 고용·복지 지원정책(인프라)로는 은둔형 외톨이 니트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원기관을 찾지 않는다.
- C형을 방치하면 사회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나중 사회적비용은 더 커질 것
-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이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자원과 클라이언트(또는 요보호) 정보를 공유하며, 정부는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 청년자립지원사업²⁾ 사례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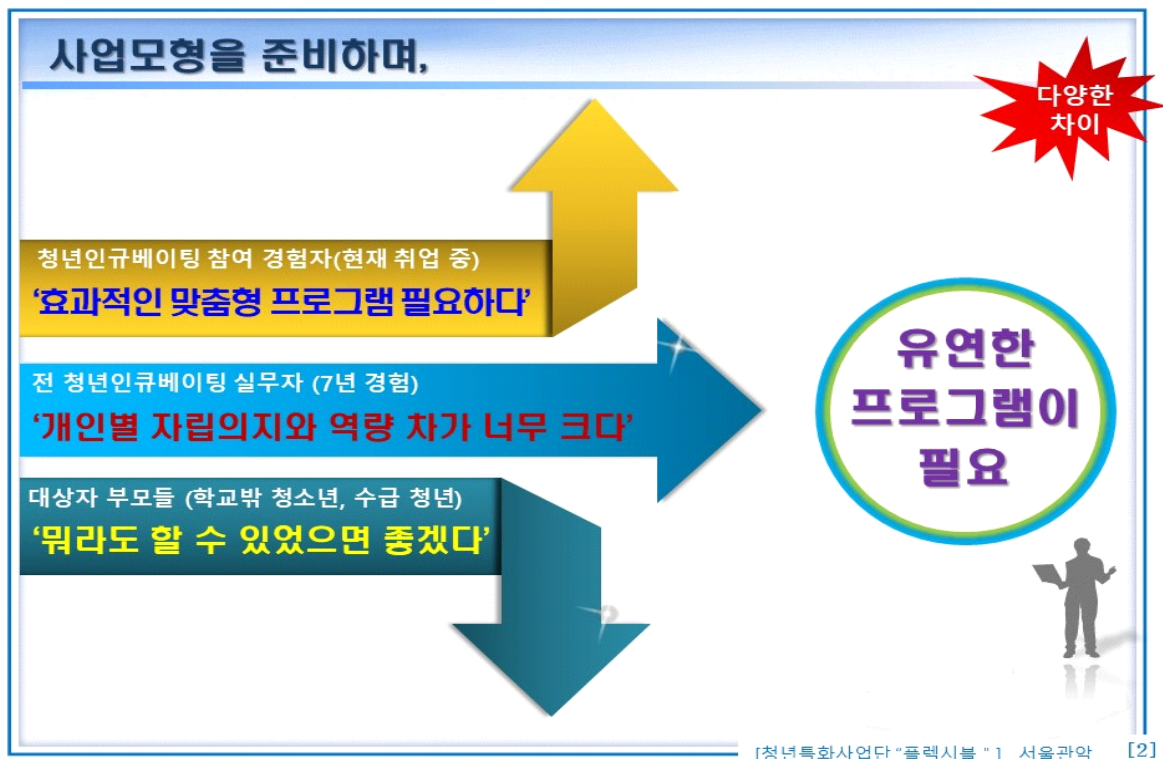
<사례> 관악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청년자립지원사업)

자립역량 맞춤형

청년특화사업단 “플렉시블”

2018.08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2) 보건복지부에서 2018.8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며, 그 전에는 청소년자활프로그램(1997~2015)이 있었다.

관악지역자활센터의 사례 중 참여자에 대한 접근방식(프로그램)은 프랑스 미시옹 로칼의 동반(accompagnement),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동행(지원·관리)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개인의 변화와 직업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창업을 도모하는 점에서 영국의 사회적기업 피브틴(FIFTEEN)과 닮아 있다. 한편 참여자에게는 훈련수당이 아닌 임금(월 약100만원)을 주는 것이 여느 직업훈련 또는 고용지원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모델 개요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 대상자 : 18~34세 저소득청년
 - 중위소득 50% 자활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금전 + 비금전)
 - 매월 자활근로 임금(약 101만원)
운영기관 사업비(임금의 30%)
 - 임파워먼트1 : 상담/진단, 교육
임파워먼트2 : 창업지원, 인턴,
자활근로 연계훈련
 - 내일키움장려금 등 자산형성 지원
-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 모형 (자체 방침)

- 지원기간 : 총 36개월 이내
 - 각 단계별 참여기간 범위에서
개별 특성에 따라 가변적 운영
- 지원금(임금)
 - 개인별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한도액 내에서 차등지급
 - 예) 1단계 과정은 하향 지급
- 지원방식(프로그램)
 - 맞춤형 IAP & ISP 원칙
 - 단계별 발전을 지향하되,
가변적 운영 (유급/회기/월반)

유연함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청년특화사업단 "플렉시블"]_서울관악

[3]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방향

1단계
임파워먼트
(2~12개월)

2단계
실전 · 훈련
(1~30개월)

3단계
도약
(1~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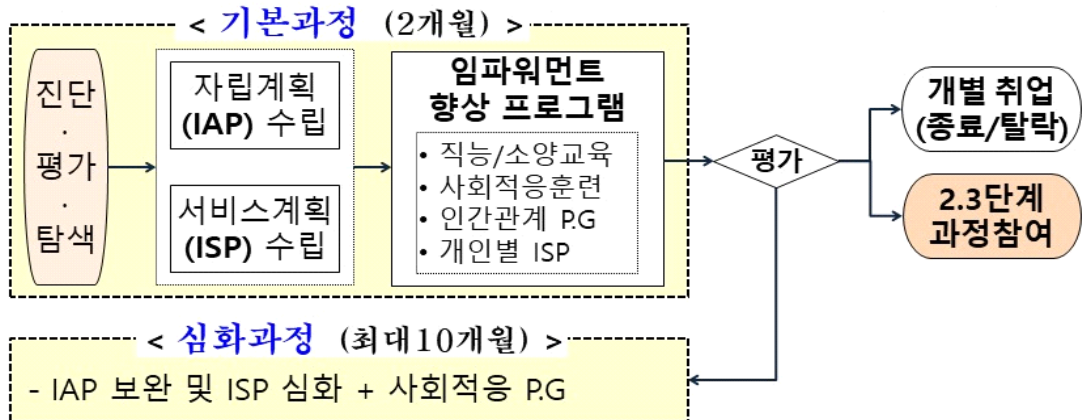
플렉시블
(flexible)

- 무원칙이 원칙 : 유급/월반/기간 등 모두 탄력적
- 융복합형 P.G : 게이트웨이, 기존 사업단, SE기업
특화사업 등을 전부 활용

[청년특화사업단 "플렉시블"]_서울관악

[4]

세부 모형 (1단계 - 임파워먼트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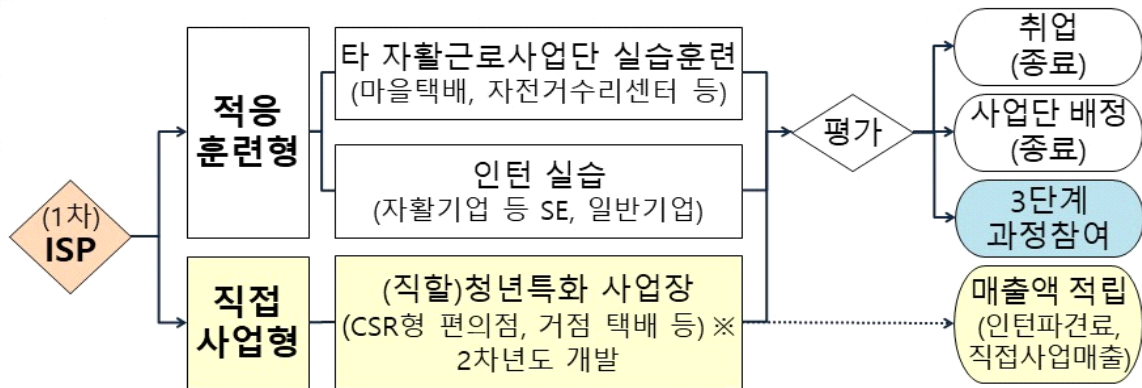


- **기본형: 기본 게이트웨이 응용**
- **심화과정 : 의욕 및 역량 저평가자를 위한 심화 프로그램**
- **개인별 종결시기 다양 (종료 또는 다음 단계로 진입)**

[청년특화사업단 "플렉시블 "]_서울관악

[5]

세부 모형 (2단계 - 실전 ·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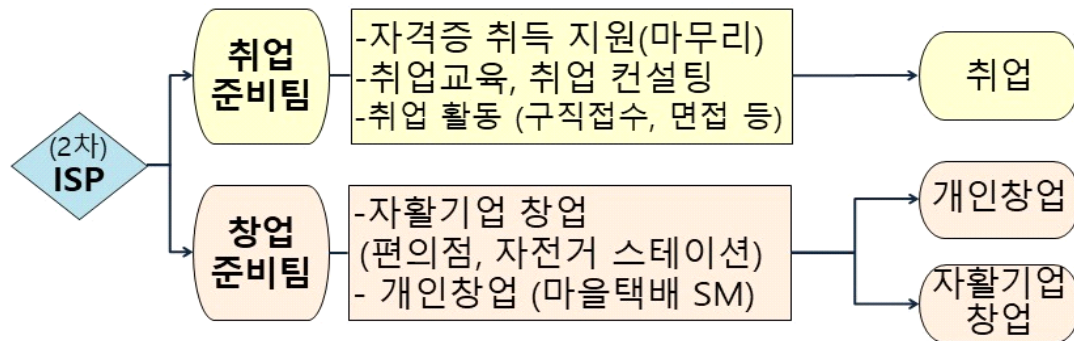


- **적응훈련** :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의 안정성을 활용한 실습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인턴(유/무급)
- **청년특화사업단 참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할사업**
(2차년도에 CSR형 편의점, 거점 택배, 소셜 프랜차이즈 카페 등을 검토 중)
- **개인별 직능교육, 자격증취득 지원은 계속**

[청년특화사업단 "플렉시블 "]_서울관악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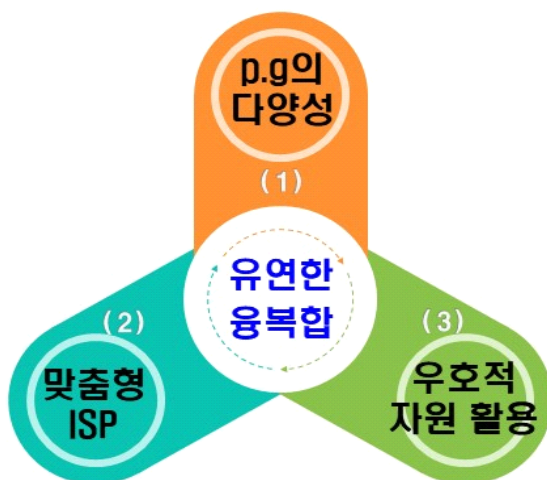
세부 모형 (3단계 - 도약)



- 2단계의 **직할 자활근로사업장을 자활기업으로 전환**
 - ▶ 기업설립을 위한 전문 교육 및 심화 컨설팅
- **취업 준비 마무리**
 - ▶ 취업분야별 직무교육, 자격증취득 지원, 취업교육 및 컨설팅

[청년특화사업단 "플렉시블 "]_서울관악 [7]

사업모형 특징과 한계



- **청년의 다양성을 감안한 P.G**
-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금**
- **대상자가 선별적 (자활급여수급자)**
- **아직은 평가가 이르다**

[청년특화사업단 "플렉시블 "]_서울관악 [8]



토론 4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1. 발제에 대하여

- 야마모토코헤이 교수의 일본 와카모노 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와카모노들의 삶을 현상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와는 접근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야마모토 교수는 일본의 경우 와카모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이나 법률적 근거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일본의 와카모노 지원 정책이 일자리 영역에 집중하여 구축되어 있고 “복지국가형 토대가 없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은 이제 청년지원 정책 논의의 시발점에 서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 소개한 ‘와카모노 서포트스테이션’ 사업이 ‘와카모노에 대한 취업적 자립지원기관이면서 취직 등 진로결정자 수를 평가지표로 한다’ 라는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한계점을 지적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단위의 수많은 청년지원 프로그램 역시도 이와 같은 평가지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적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자활지원 정책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적 선택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지원 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강내영 교수의 한국적 상황에서의 대처와 제안에 대하여
 - 우리나라 청년지원 정책이 그 대상을 단순히 연령대에 맞춰 구분하여 대상을 설정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다양한 경로

의 삶의 문제를 분석”하여 문제 유형을 포괄하는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함.

- 청년의 문제, 특히 니트의 문제를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보다는 가족,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에도 심분 동의함.
- 또한, 청년지원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로서 강내영 교수께서 제안한 ‘지역사회 안전망 기본법(또는 지원법)’에 공감하나, 명시한 ‘지역사회 안전망’의 범주에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대상층이 해당되기 때문에 청년의 문제에 포커싱된 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임.
- 강내영 교수 발제의 핵심은 지역단위의 안전망 구축으로서 기존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마을, 공공 등을 망라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네트워크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는 것임. 관련, 최근 복지부가 구상하는 커뮤니티케어³⁾ 정책 논의에서 청년문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2. 청년지원 관련 법령은?

○ 우리나라는 청소년 관련 법령은 다수⁴⁾ 있으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⁵⁾이 유일 함. 물론 청소년 관련법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24세 또는 29세까지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령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 청년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최근 ‘청년기본법(안)’⁶⁾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 수준에 이르렀고 금명간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방정부 단위의 청년지원조례가 다수 마련⁷⁾되어 있으나 실제 청년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상징적 내용을 주로 담은 기본법적 성격이 강함.

○ 따라서 금번 논의되고 있는 모법 개념의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고 나면 하위 법령

3) 읍면동단위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종합상담 및 안내, 연계기능(Gateway)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력을 강화하는 정책

4)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6) 청년기본법안은 국회내 청년미래 특별위원회에서 2018. 05. 18 여야공동으로 발의(이명수, 강효상, 권칠승, 김병관, 김종훈, 김중로, 김해영, 박순자, 박정, 박찬대, 신보라, 염동열, 위성곤, 이채익, 임종성, 정유섭, 정인화, 채이배 의원)

7) 2018.08. 현재 전국 108개 지자체에서 청년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전달체계, 사업의 내용, 예산 부담의 주체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임.

- 소결: 현 청년기본법안은 니트족, 저소득 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본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주된 대상을 담지 못하고 있어 ‘청년지원특별법’ 형태의 법률의 보완 또는 제정이 필요함.

〈청년기본법(안)주요 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 다.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만, 다른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6조 제3항)
- 라.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특히, 기본 계획에는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마.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관련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3.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은?

- 금번 토론의 주제인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와카모노: 만 40세 미만의 다음과 같은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법적 정의는 없음)
 - ▶ 초·중학교 시대에 교우관계나 학업부진 등으로 등교거부, 은둔형 외톨이 등이 된 사람
 - ▶ 초·중학교 시대에 발달상의 문제로 인해, 집단참여가 곤란한 사람, 고교 중퇴후,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해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 또는 비행청소년이 된 사람
 - ▶ 고교졸업후, 진학은 했지만 집단에 참여곤란 또는 에너지가 없어 취업이 곤란한 사람
 - ▶ 취업을 해도, 엄격한 관리나 노동조건에 의해 이직한 니트·프리타 또는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
 - ▶ 발달장애나 정신장애로 인해 학교에서 사회로의 이행이 곤란한 사람
 -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장기간 자신의 집이나 방에 틀어박혀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상태, 또는 그런 사람
 - 니트(NEET)족: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취업도 안하고 취업을 위한 훈련도 하지 않는 사람
- 우리나라 청년지원정책은 상기한 와카모노, 히키코모리, 니트족 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대상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청년지원정책이 상기한 ‘사회적 보호(자원)가 필요한 청년’으로 국한하여 구축될 수는 없으나 정책적 우선 대상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지원정책은 법적으로는 ‘고용정책’ 또는 ‘교육정책’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됨.
- 소결: 따라서 강내영 교수의 지적과 같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률적 용어의 명확화가 선결되어야 함.

4. 청년지원정책의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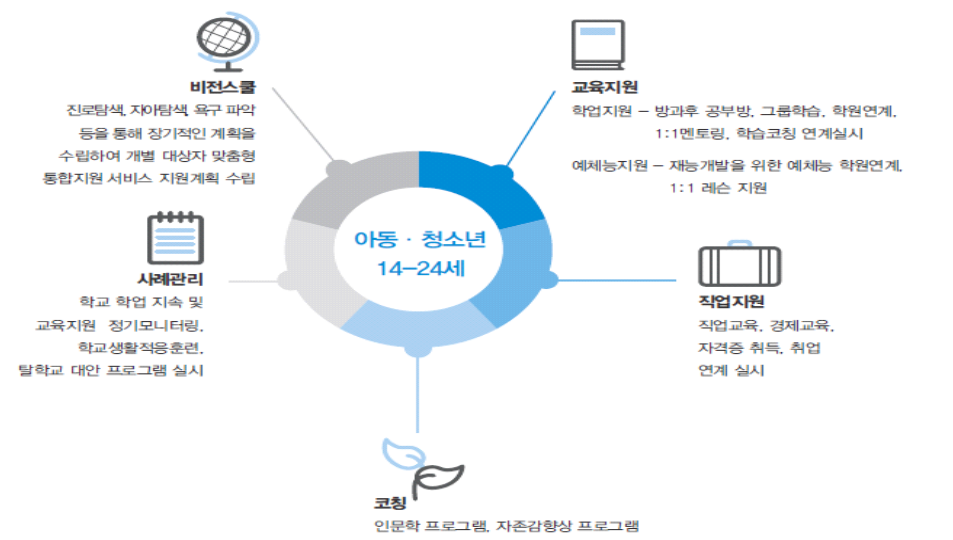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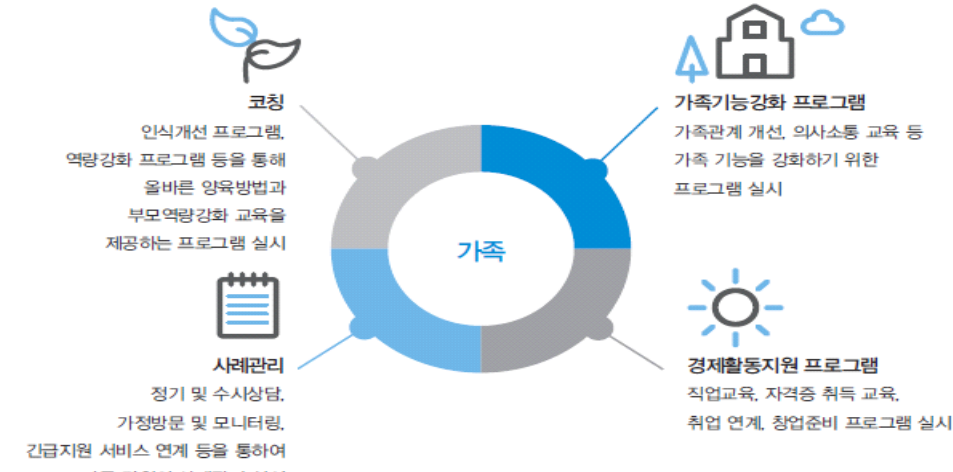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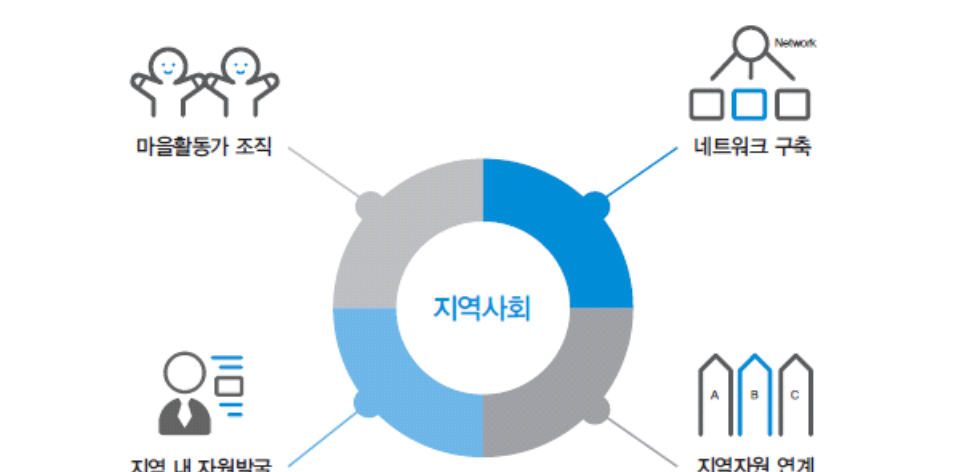
- 우리나라 청년지원정책은 고용(일자리), 학업, 문화, 복지, 주거, 결혼, 출산 등 다차원적 접근을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청년 고용정책’이라 할 만큼 청년의 고용문제(실업문제)에 집중하고 하고 있음.
 - 이는 실재 청년고용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권 전략적인 이슈화(의제화)와도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청년 문제의 1순위가 고용문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문제 해결의 방식은 대부분 단선적 접근으로 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다수임. 청년수당을 필두로 한 청년 지원정책의 대부분은 현금, 현물성(또는 프로그램) 지원 정책인바, 단기적 실효성(정치적 효과)은 있으나 극단적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도 일면 타당하다 할 것임.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청년정책을 고용에 집중하다보니 결국 청년정책의 대상은 사회적 낙오자라는 낙인감도 있음.
 -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을 고용과 관련한 니즈를 가진 청년으로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청년기 이전에서부터(성인이행기: 14세~24세) 청년의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 소결: 청년문제의 근원인 청소년기에서 부터의 접근,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5. 사회복지관의 ‘희망플랜’ 사업 소개

- 전국 사회복지관 11개 지역⁸⁾에서 운영 중인 희망플랜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제기반사업의 일환으로 빈곤 전승과 NEET 감소를 위해 기획된 3년간 시행하는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임.
 - 희망플랜 사업의 주 대상은 지역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NEET에 해당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성인이행기(14세~24세)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각 지역센터 별로 약 100여 명씩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⁹⁾에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강점인 사례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8) 서울(신림, 은평, 성북), 경기(광명, 춘의), 전북(평화), 전남(무등), 대구(중구, 달서), 부산(진구), 강원(원주)등 11개 지역센터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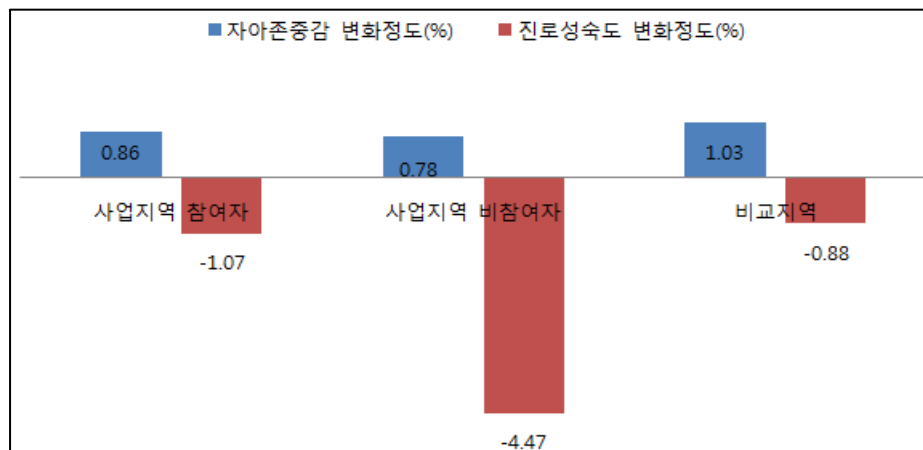
9) 3 step으로 사업명을 명시하여 전국 11개 센터가 기본사업으로 진행

아동 · 청소년 (14~24세)	학업 및 예체능 지원, 자격증 취득 및 직업 교육 지원, 코칭 및 사례관리, 비전컨설팅  비전스쿨 진로탐색, 자아탐색 욕구 파악 등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대상자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교육지원 학업지원 - 방과후 공부방, 그룹학습, 학원연계, 1:1멘토링, 학습코칭 연계 실시 예체능지원 - 재능개발을 위한 예체능 학원연계, 1:1 레슨 지원 직업지원 직업교육, 경제교육,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실시 사례관리 학교 학업 지속 및 교육지원 정기모니터링, 학교생활적응훈련, 탈학교 대안 프로그램 실시 코칭 인문학 프로그램,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인성교육, 사회인식증진, 공동체의식 등) 실시
가족	가구주의 경제활동 및 참여활동, 가족기능강화, 부모코칭, 사례관리  코칭 인식개선 프로그램,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올바른 양육방법과 부모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실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 의사소통 교육 등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경제활동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취업 연계, 창업준비 프로그램 실시 사례관리 정기 및 수시상담, 가정방문 및 모니터링,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실시
지역 사회	지역사회 역량강화(청년활동가, 마을활동가 지역사회 활동), 지역 내 착한기업 연계 취업알선, 네트워크 구축  마을활동가 조직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자원발굴 지역자원 연계

○ 희망플랜 사업의 성과¹⁰⁾로서 청소년의 변화(사업 실행 후 1년 6개월 후의 변화)로서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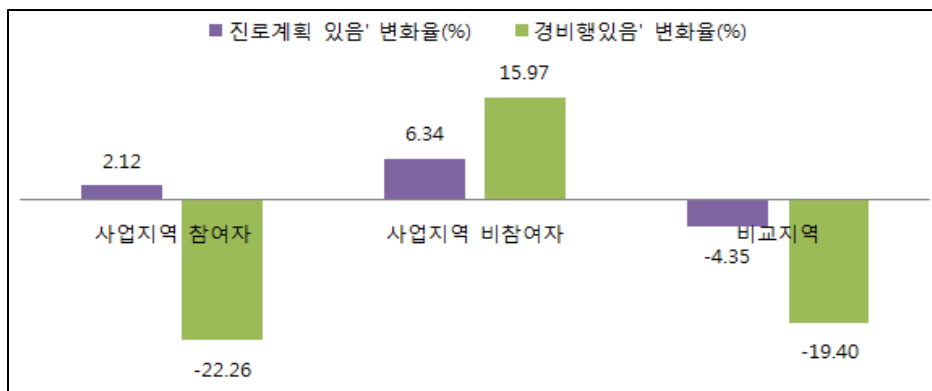
- 사업지역 참여자, 사업지역 비참여자, 비교지역의 13-18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있어 변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은 증가하고 진로성숙도는 다소 낮게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됨.

〈청소년의 변화: 자아존중감 및 진로 성숙도〉



- 진로계획 및 경비행 변화: 사업지역 참여자는 진로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아짐. 반면, 비교지역의 경우 진로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오히려 감소함.
- 흡연·음주 등의 경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사업지역 참여자에게서 22.2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같은 지역의 비참여자들의 경우 경비행 행동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청소년의 변화: 진로계획 및 경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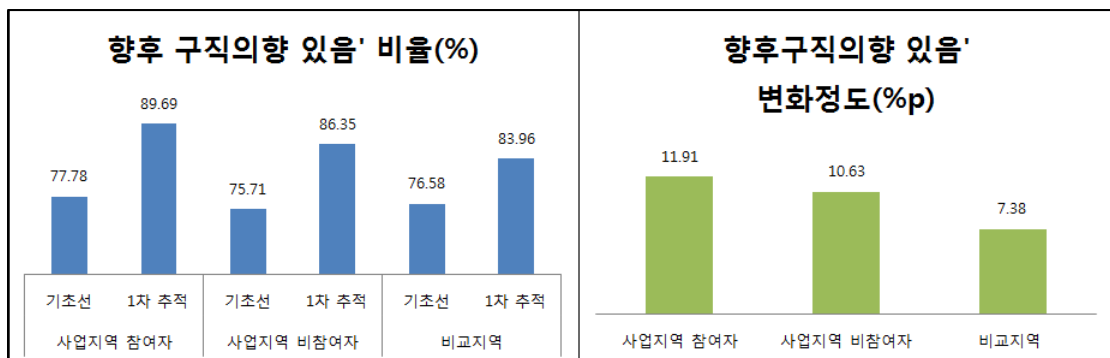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제기반사업 성과연구(이봉주 외, 2017)

○ 또한 청년의 변화(사업 실행 후 1년 6개월 후의 변화)는 주로 니트 진입, 유지, 탈출 비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냄.

- 사업지역의 프로그램 참여 청년의 니트 진입 확률이 비참여 청년보다 높게 나타남. 그러나 이는 희망플랜 사업이 적극적 아웃리치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사회에 니트 상태로 있는 청년들을 발굴,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니트 상태에서 탈출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중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이 많아진다는 것은 대상자 발굴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니트 유지 확률은 지역의 프로그램 비참여자보다 낮고 니트 탈출 확률은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니트 확률 감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구직의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바, 사업 참여 청년의 향후 구직의향에도 변화를 나타냈음.
- 분석결과 향후 구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프로그램 비참여자 및 비교지역의 청년들에 비해 사업지역 참여자에게서 가장 크게 높아졌음.

〈향후 구직 의향〉





토론 5

김희옥
크리킨디센터 센터장



토론 6

강현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